

제과점 운영하며 고아, 외국인 근로자 등에 매일 아침 빵 보시

1975년 겨울 어느 날, 경기도 파주시 궁전제과. 그곳에는 따뜻한 우유와 롤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 단팻빵을 쌓아 놓고 미팅하는 고교생 언니 오빠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그 뒤에는 7살 배기 남자 아이가 성에 낀 유리창 밖에서 손을 호호 불며 애처로운 눈으로 진열된 빵이며 도너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한 달 간 풍년이 모은 주머니 속 5백원을 연신 만지작거렸다. 이 돈이면 먹고 싶은 왕단팻빵이며 크림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딱석 거금 5백원을 내고 빵을 사먹기가 아까워서였다.

이 비망록의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서 '케이하우스 쉼프'를 운영하고 있는 이군성씨(37).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장애인 복지단체 '사랑의 집', 가솔 청소년과 고아들을 돌보는 '쉽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사사에 2년째 매일 아침 '사랑의 빵'을 보내주고 있다. 그가 하루에 공급하는 무료 빵의 양만도 무려 30인분. 돈으로 환산하면 20만원을 훌쩍 넘는다. 유년시절 맛난 빵 한번 싹쓸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이씨. 이런 그의 어릴 적 꿈은 '슈퍼마켓 주인' '제과점 주인' '기계화된 농기계로 양복입고 농사짓기' 등이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군성씨.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혼자만 달려가지 않고 이웃과 함께 걸어 온 그의 '세 가지 꿈' 이야기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랑의 빵' 아저씨

이군성



호밀빵, 식빵, 단팻빵, 비게트 등 갖가지 빵을 사랑과 함께 정반에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하는 이군성씨.

이웃과 함께 꿈이 이뤄요

꿈★1막 - 슈퍼마켓

'부모은중경' 읽고 노인 위한 삶 발원

23살에 군을 전역한 이씨는 아내와 함께 과일과 채소 행상을 2년 간 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떼와 반듯도둑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열심히 돈을 모았다.

장마철이면 트럭에 쪼그려 앉아 빗물에 젖은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여름이면 신선도가 생명인 야채와 과일을 다 팔기 위해 모기떼와 싸우며 장사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경기도 파주에 작은 슈퍼마켓을 차렸다. 개업한지 4년이 되던 해 6명 짜리 구멍가게가 40평짜리 대형(슈퍼)로 변할 만큼 장사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잘됐다.

"슈퍼를 시작 한 후 5년 동안은 먹고 살기 바빠 남을 챙긴다는 건 업무도 못 냈죠. 그런데 우연히 <부모은중경>을 접하고부터는 생각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 후 5년간 이씨는 인근 노인정 세 곳을 정해 놓고 명절이면 만두와 가래떡 20상자씩을 보내 드리며 온정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투른 칼질로 아내와 함께 가래떡을 썰느라 지금도 이씨의 손은 여기저기 베인 상처투성이다. 하지만 "자네 떡에 떡국 맛있게 잘 먹었네"라며 건네는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에 언제나 그의 얼굴엔 웃음꽃이 핀다. 이런 이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노인분들의 표현방식도 다양했다. 봄이면 산나물이며, 숙, 냉이 등을 캐다 주는 할머니며 사군자를 그려주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1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해 번 돈보다 5년간 할머니지 할머니들과 깊은 정을 나눈 것이 훨씬 큰 행복이죠."라고 말하는 이씨. 두 번째 꿈을 위한 그의 1막은 그렇게 영글어 가고 있었다.

꿈★2막 - 제과점

정성스런 밀가루 반죽, 웃음 가득 담은 단팻

10년간 잘나가던 슈퍼마켓을 접고 지금의 '케이하우스 쉼프'로 전업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씨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스타니파타> 구절 '소리에 놀리지 않는 사자와 같이/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에서 찾았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처럼 저 또한 그토록 소망했던 어릴 적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별이 가렸던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경기에 민감한 제과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힘들게 번 돈 다 날릴 생각이냐"며 극구 말리는 어머니며,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망하기 쉽다"고 재고를 바랐던 큰형님. 이 같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마침내 제과점을 차렸다.

당초의 슈퍼마켓보다 별이는 녹록치 않았지만 어릴 적 꿈을 이뤄 창업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씨의 가슴은 여전히 벅차다. 요즘 그는 한 가지 행복이 더 생겼다. 슈퍼마켓을 하며 무료만두·떡보시 바통을 이어 2년째 '사랑의 빵'을 장애인, 가솔 청소년과 고아들을 돌보는 복지단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사사에 보내주고 있다. 그것도 단순히 밀가루 반죽해서 그 안에 단팻을 넣어 만든 인스턴트 빵이 아닌 쉼프만의 자랑인 '비엔노와즈'를 준비했다. 보시도 최고급 빵을 하고 싶어 서였다. 이것은 반죽해서 반나절 동안 숙성을 시켜 다른 재료들과 다시 반죽해 오븐에 구어야 할 만큼 손길과 정성이 많이 간다. "부처님도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접해 줬으니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이만큼 받아"

아지'라는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진짜 봉사죠."

하루에도 수 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때론 짜증 낼 법도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시질 않는다. 위생이 생명인 빵을 손으로 딱석 집었다 왔다는 반복하는 손님에게까지도 말이다.

"중국 속담에 장사를 하면서 웃지 않으려거든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음 속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지 않을까요? 허허허."

꿈★3막 - 양복쟁이 농사꾼

'농업기술보급센터' 건립 좋은 쌀 개발 원(願)

그의 마지막 꿈은 양복 입고 농사짓는 것이다. 양복입고 농사를 짓는다? 그것은 농업의 자동화·기술화·현대화를 일컫는 말이다. 이씨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간단하다.

아버지 혼자서 쟁기로 논을 갈고 땀방울에서 피(잡초)를 뽑는 모습에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이다. 이씨는 향후 10년 안에 현재 대학에서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큰형 이문성씨(44)와 함께 고향인 파주에 '농업기술보급센터'를 세워 도시의 젊은이들도 시골에서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시대가 오도록 만들고 싶다는 게 생애 최대 목표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외국 쌀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 쌀, 특용작물, 시설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농기계의 과학화가 최우선입니다." 세계 최강의 농업국을 만들겠다는 이씨의 포부다. 어릴 적 소중한 꿈을 차곡차곡 이뤄왔던 것처럼 그의 세 번째 꿈도 기대해 본다.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게 품질 좋은 우리 쌀을 보시하겠다는 것도 세 번째 꿈속에 포함돼 있다.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며 그 속에서 보시행도 펼쳐가는 이씨의 꿈들이 진정 아름다워 보이는 까닭은 '자타불이(自他不二)'를 실천하는 그의 향기 때문이 아닐까.

글=노병철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대구 BBS 광복 60주년 기념 - 국토사랑 순례

●기간 : 2005년 8월 13(토)일 - 15(월) 2박 3일

- 일정 :
 - 8.13 오전 07:00 대구불교방송 앞 출발
 - 오후 14:00 집결지 도착(현대 금강산 콘도)
 - 오후 16:00 남측출입사무소 출발
 - 오후 16:30 북측출입사무소 도착
 - 오후 17:30 저녁 식사
 - 오후 18:00 자유시간(교예공연 옵션)
 - 8.14 오전 08:00 아침식사
 - 오전 09:00 금강산 관광(구룡연 코스)
 - 점심식사
 - 오후 13:00 신계사 통일기원 대법회
 - 오후 14:00 금강산 관광(만물상 코스)
 - 오후 17:00 온천욕(옵션)
 - 오후 18:0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 8.15 오전 07:00 아침식사
 - 오전 08:00 금강산 관광(해금강·삼일포 코스)
 - 점심식사
 - 오후 12:00 남측출입사무소 도착
 - 오후 13:30 북측출입사무소 도착
 - 오후 15:00 대구불교방송 앞 도착
 - 오후 22:00 대구불교방송 앞 도착

*상기일정은 현지사정과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강산·신계사 순례 및 통일기원 대법회

◎ 지도법사 : 대구BBS 본부장 장정스님

■ 출발일시 : 2005.8.13 오전 7시

■ 비 용 : 55만원 / 1인당

■ 포함내역 : 현지 2인실 호텔숙박비, 현지 관광지요금 및 교통비, 식사비, 대구 ↔ 집결지 교통비

■ 불 포 함 : 개인 온천욕, 교예공연등 개인 관람비

■ 신청마감 : 2000년 7월 18일

■ 문 의 : (053)427-5114(대구불교방송), 서울 경기지역 신청 연락처 1544-0408, 011-844-6715(담당 : 배병대)

■ 소지금지 품목

① 10배울 이상의 쌍안경 / 망원경, 160mm 이상의 망원렌즈가 달린 사진기, 24배줌(광학기준) 이상의 줌렌즈가 달린 비디오키메라

② 개인의 치료목적에 관한 것을 제외한, 상표와 설명서가 없어 그 성분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품 및 상품

③ 관광객의 문화생활 및 편의목적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수량을 제외한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화테이프

④ 위조지폐

⑤ 의료목적에 관한 것을 제외한 독약, 마약, 그 밖의 유독성 화학물질

■ 준 비 물 : ① 여행가방 또는 배낭 ② 지갑용 벨트 ③ 등산화 ④ 모자

BBS 대구불교방송

